

일 주 문

제28회 불국사 어린이 사생대회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4월 28일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제28회 불국사어린이 그리기·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054)746-1472

쌍계사 보살계 대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4월 14~16일 2013년도 정기보살계 대법회와 대장경 정대불사 및 육조봉찬회 총회를 병행한다. (055)883-1901

화엄사 흥매화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4월 6~7일 흥매화 사진 콘테스트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061)782-7600

'사생연' 불교경전식물 답사
조체의 사찰생태연구소 소장은 4월 7~8일 선암사, 송광사 일대에서 '불교경전 속 식물' 이해를 돕기 위한 '식생' 답사를 실시한다. (02)745-5813

신임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장에 덕문 스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덕문 스님이 선출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는 3월 13일 제88차 회의를 열고 3월 23일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원경 스님의 후임으로 덕문 스님을 선출했다. 또 부위원장 장명 스님과 간사 오심 스님에 대해서는 재임을 결정했다. 이날 덕문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 스님들 말씀을 경청해 종단과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종일 기자

금강대, 필리핀 세부의대와 학술협정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3월 14일 필리핀 세부의학종합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금강대는 매년 2명 교환학생 파견,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의 교류협력 사업을 펼쳐갈 계획이다. 금강대는 이로써 7개국 26개 해외대학 및 교육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게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내 미국과 캐나다의 3개 대학과도 학술교류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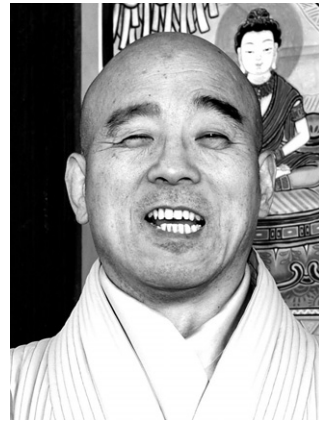
총지종 총회회장 대원 대정사 원적

불교총지종 중앙총회 의장 대원 대정사(부산 정각사 주교)가 3월 15일 오후 1시 원적이 들었다. 세수 65세. 총지종 통리원은 '통리원장'으로 자리를 겸수했다. (051)550-9991

“의례는 종교 근간...후학 양성 매진”

조계종 신임 아산작법학장 법안 스님

“전임 학장이셨던 인목 스님이 15년간을 일궈온 학교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목 스님의 원력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 6일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조계종 신임아산작법학교 학장으로 취임한 법안 스님(사진, 서울 우면사 대정사 주지)은 취임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아산작법학교는 조계종이 불교전통의례 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세운 특수교육기관이다. 1997년 중앙승가대 부설로 설립됐다가 2002년 독립으로 전향했지만 초창기에는 교육 공간이 없어 학교 기숙사 지하를 전전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산작법학교는 지금까지 본과 10기, 전문어산과 6기 등 총 26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의례 대중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법안 스님은 의례는 종교의 근간인만큼 소중히 보존·계승·발전돼야 할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산 작법은 스님이라는 한 번은 배워야할 필수적인 교육임을 강조했다. “종교에서 의례는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의례가 없다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종교는 전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산작법학교는 조계종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전문적으로 수학해야 하는 곳입니다.”



아산 작법, 스님이라면 필수적으로 교육받아야 유구하게 전승된 의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누구나 한 번쯤은 전문적으로 수학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간 선을 종지종풍으로 삼았던 조계종은 의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교 의례에 대한 관심은 종단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다. 종단은 의례위원회를 구성해 한글 의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관사, 삼하사 국형 수록제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

기도 했다. 법안 스님은 이러한 상황들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글 의례도 당장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의례를 다듬고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불교 의례에 대한 관심은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향상됐습니다. 불교 의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종단에서는 한글 의례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죠. 당장의 성과를 중요하지만 의례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한글 의례 역시 전문 한문 의례가 그랬던 것처럼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례에 대한 공부의 깊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스님은 현 상황을 도약기로 삼아 아산작법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학하고 있는 스님들도 여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공부해주시고, 스승의 것을 흉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탐구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행과 나아가서는 중생 교화의 방편으로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진지한 만남 · 대화가 갈등 해결”

도법 스님-산티가르바 3월 12일 대담 나뉨

“태양이 없다면 부처도 예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상호 작용하며 인드라망과 같이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 종교, 이념을 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겁니다. 생명평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평화운동의 상징이자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은 영국 출신 비구이자 비폭력대화(NVC) 수행자인 산티가르바를 만나 설파한 생명평화 운동의 의미다. 둘의 만남은 3월 12일 도법 스님의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도법 스님은 이날 진지한 만남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경전을 잘 보면 최고의 수행과 기도는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도 일생을 거쳐 여행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가르침을 전했다”며 “그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삶도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로 사는 것은 없다 더불어 사는 삶이 대안

산티가르바도 도법 스님의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산티가르바는 “만나고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벌법을 따르려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상대를 이해시켰다”고 화답했다.

이러 도법 스님은 “생명은 허망하면서 존귀하다. 이를 알면 자신에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이것이 공존하는 게 생명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산티가르바는 “한반도 대립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가 원인으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감, 살아있는 존재들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티가르바는 삼보종(三寶宗 the Triratna Buddhist Order, 옛 서구불교회 the Western Buddhism Order)의 원로 멤버이자 삼보종 영국 서남지방 의장으로 비폭력 대화와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를 가르치고 있다. 한편 산티가르바는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생명평화 대화공동체 붓다의 대화 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또한 3월 15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대중강연을, 16~17일에는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종일 기자

“4대강 사업 종교적으로 접근”

‘모래가...’ 영화 만든 지율 스님



“지난 9월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절이 어려워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기술은 부족합니다만 영화를 통해 대중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성천 지킴이 지율 스님이 연출한 ‘모래가 흐르는 강’ 시사회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모래가 흐르는 강’은 지율 스님이 2008년 4대강 착공식 뉴스를 보고 산에서 내려와 물길을 따라 걸으며 내성천의 변화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스님은 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좀더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방향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스님은 지난 4년 동안 내성천을 지키며 강에서 나름의 대안을 찾고 싶었다고 말한다. 스님은 “새 정부가 4대강 문제를 깊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영화를 통해 이 문제를 새롭게 보아 주었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 정혜수 기자

해인승가대 총동문회, 대만불교 순례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정우)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대만불교를 순례했다. 이번 순례에서 총동문회는 종대선사, 불광산사, 제원사, 원조사, 법고산사, 자량사 등 6개 사찰을 탐방했으며, 특히 불광산사 성운 대사를 친견하는 등 대만불교 현지 불사에 대한 다양한 현장을 체험했다. 신종일 기자

국제선센터 · 양천경찰서 지원 협약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와 양천경찰서(서장 김성중)는 3월 14일 선센터 2층 법당에서 범피 피해자 지원 및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제선센터와 양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청소년 관련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신종일 기자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 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 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가가 온누리에 찬탄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송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청사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전추를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정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송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니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 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창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손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수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빠르고 시큰 거러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을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쪽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 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우서 고통과 질병 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창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응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제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염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염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범운 스님, 월봉 스님

2. 수업일시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영남총회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